ALONE

티에리 마이아르 솔로앨범

2017년 4월28일 출시

판매 및 배급사 L’autre

솔로 새 앨범이 2017년 4월 28일 출시

연주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69년 1월 6일 프랑수와-르네 크리스티아니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함께 자리한 샹송계 « 3대 거물 » 브렐, 브라상스, 페레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은 쟝-피에르 르롸흐사진을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감동적이라 비 현실적이기도 한 이 사진은 그 시절 가수들은 일상을 노래하는 시인이며, 노래가사 또한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리듬과 함께 녹아 어우러져 있음을 잘 보여준다. 개성 넘치는 이 세 사람은 각 자 고유의 색깔과 아름다운 가사를 통해 여러 세대를 걸쳐 사랑 받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신세대 가수들과 작사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후 세대들의 작품 중 감성적인 부분 혹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강렬함 차원에서 그들을 능가하는 곡들은 아직 전무하다. 가슴 속 깊숙이 추억처럼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그들의 음악은 재즈의 본 고향 브로드웨이의 음악색채보다 더 친근하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음악가들을 잠재우고 또는 이성을 깨우치기도 하며 감동을 선사하였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티에리 마이아르는 피아노 독주 앨범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어릴 적부터 머리 속을 떠나지 않은 그들의 음악적 세계를 조금이나마 재 조명해 보고자 한다. 조르쥬 브라상스의 팬이었던 아버지와 그의 음악 세계를 매칭하여 친근감이 넘치는 선율을 자아내고 있으며 새 앨범작업 시, 아버지의 충고 도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이 가수들을 오래 전부터 줄곧 좋아했으며 그들은 항상 나를 감동시켰다 » 라고 아버지는 추억을 되새긴다. « 그들의 노래가사를 잊지 않고 외우고 있으며 그 가사들은 구구절절 내 가슴 속에서 나의 삶과 함께 세월을 보냈다. 의식 무의식 중으로 그 가사들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당연한 것이다. »

 뼈 속 깊이 재즈 맨인 티에리 마이아르는 죠르쥬 브라상스, 자끄 브렐, 레오 페레 이 세 사람의 샹송을 자신만의 자유로운 즉흥적 해석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들의 멜로디를 기본 바탕으로 하지만 새로운 색채를 가미하여 세 거장의 대중적인 샹송 중심에 그가 장시간 추구해온 과학적 하모니를 구축한다. 칙 코리아, 빌 에반스에 견줄만한 리듬감과 함께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성향의 화성법을 넘나들면서 자신 고유의 독특한 선율구성인 프레이징을 부각하고 손 끝 터치감을 살렸다. «나는 하모니를 좋아한다 »라고 그는 고백한다. « 개인적으로 이 세 거장에게 어떻게 경의를 표할 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뭔가 놀라우면서도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시간의 흐름에도 불변하는 그런 음악적 시도를 해 보자고 했다. » 각 자 마음 속에 간직한 추억들을 회상시키면서 또한, 원작 샹송에 충실 그 이상의 감동을 자아내며 그의 손끝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샹송 곡들이 탈바꿈하여 «클래식화»되고 있다.

샹송가수들 개개인의 음악적 세계를 충분히 드러내 보이면서 동시에 강렬한 감정선을 다시 응집하여 표현하기 위해, 티에리 마이아르는 작곡가 별 2곡씩 선정하여 즉흥 연주한 것을 시리즈 별 화폭을 연상시키는 구조로 녹음과 앨범작업을 진행하였다. 앨범 타이틀 «Alone»과 «3인의 시인 »이 잘 나타내고 있듯이 이 번 앨범작업은 연주자 개인적 예술경험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고전으로의 복귀와 동시에 티에리 마이아르에게는 건반 악기 피아노의 음색에 아코디나의 호흡을 가미한 독특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였다. 특히, 피아니스트 자신이 어린 시절 연주한 최초의 악기 아코디언의 추억을 상기하면서, 아코디언보다는 좀 더 하모니카에 가까우며 재즈연주에 잘 어울리는 아코디아를 선택해 연주에 매력적인 음색을 한층더하고 있다.

연주 경력 20년 기간 동안, 1997년 첫 앨범 녹음 시 존 패티투치, 데니스 체임버 같은 재즈 거장들과의 함께 연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에 이르기까지 티에리 마이아르는 끊임없이 야심 찬 음악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작곡, 즉흥연주 그리고 클래식 트리오처럼 피아니스 본인의 창작방식과는 차별화되지만 더욱 강렬하고 열정적인 음악성향과 다양한 형태의 음악 그룹활동에 참여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색다른 음악적 삶을 시도하고 추구한다. 하지만 이제껏 그가 도전해온 모든 독창적인 시도 중에서도 이번 출시 앨범 «Alone »은 피아니스트라는 자신과 대면한 채 철저한 고독 속에서 완성해냄으로써 그의 개성이 아주 짙게 묻어나며 멋진 감동을 선사할 최고작품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확신한다. Alone,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그의 음악세계가 확고한 존재감을 표시하며 우리들의 수많은 추억들을 불러 일으키는 한.

**Site** [www.thierrymaillard.com](http://www.thierrymaillard.com) **f** fb/officiel.thierrymaillard

 **티에리 마이아르는 각자 독특한 음악 세계를 가진 프랑스 샹송 계 거장이자 시인,**

**3인의 가수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피아노 솔로 앨범만이 누릴 수 있는 친밀감 속에서**

 **클래식음악의 정수와 함께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재즈의 자유로움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라벨 : direction.a@ilonarecords.com 전화 07 86 23 22 72

홍모 및 언론사 담당 : Syvie Durand 이메일 : durand.syl@orange.fr 전화:01 40 34 17 44

**"나의 어린 시절은 이 세 명의 가수 노래와 아코디언 연주를 듣고 자랐다.**

 **내가 처음 연주한 악기가 아코디언이었으며 이 샹송들이 나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며 몇 몇 곡에 아코디나를 이용해 연주하고 싶은 욕심마저 들었다.**

 **심플한 피아노 선율에 미사여구로 가득찬 음악을 편곡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아주 음악적으로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였기에 이 앨범을 완성했다는 것에 나 스스로 자랑스럽다"**